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원주) 논술시험 인문계열 문제지

지원 전형		모집 단위		수험 번호		성 명		응시 좌번호		감독 확인	
----------	--	----------	--	----------	--	--------	--	-----------	--	----------	--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담배 한 갑당 3달러씩 부과하는 세금이 담배 구입을 억제하는 것과 같이, 물질적 손해 또는 이익에 대한 예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센티브와 도덕적 인센티브는 아동 성범죄자의 얼굴을 웹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수치심을 자극해서 성범죄를 억제시키는 것과 같이 나쁜 짓을 해서 들켰을 때 받는 부끄러움이나 나쁜 짓을 할 때 느끼는 죄책감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도적으로 고안된다.

<제시문 2>

경제적 인센티브와 도덕적 인센티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스라엘 하이파에 위치한 놀이방에서 한 실험 결과이다. 이 놀이방은 한 주에 5일 운영하고, 한 달에 360달러 (약 407,880원)를 보육비로 받는다. 이 놀이방의 운영 규칙 중의 하나는 오후 4시면 부모가 자녀를 데리러 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자주 지각을 한다. 일주일에 평균 여덟 명 정도가 지각을 한다. 덕분에 하루 일과가 모두 끝난 후에도 놀이방에는 불안에 떨며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살피 줄 교사가 적어도 한 사람은 남아 있어야 한다. 지각하는 부모를 줄이기 위해서 10분 이상 늦을 때마다 2달러 (약 2,266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 벌금 제도가 시작되자 곧바로 지각하는 부모들이 늘어났다. 벌금 제도를 실시하기 전보다 지각하는 부모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 몇 주 후에 벌금을 20달러 (22,660원)로 높였더니 지각하는 부모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벌금을 40달러 (45,320원)로 높였더니 지각하는 부모가 없어졌다. [괴짜 경제학]

<제시문 3>

일본에서 스모 선수의 순위는 1년에 여섯 번 열리는 정규 대회 결과로 결정된다. 각각의 선수들은 대회가 열릴 때마다 열 다섯 번의 시합을 하는 데, 8승 이상의 전적으로 대회를 마치면 순위가 상승하며, 7승 이하의 전적으로 대회를 마치면 순위가 하락한다. 스모 선수의 순위는 특권의 상징이다. 5-10위권에 있는 선수는 연간 25만 달러를 벌고, 40위권 안에 있으면 연간 17만 달러를 벌고, 70위권에 있으면 연간 1만 5천 달러를 벌다. 특히, 40위 안에 들면 하인을 둘 수 있고, 66위 안에 들면 허드레 일을 안 해도 되지만, 66위보다 낮은 순위의 선수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숙소를 청소하고, 밥을 지어야 한다. 이와 같이 스모 레슬링 선수의 순위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구조는 하위권에 비해 상위권에 주는 물질적, 비물질적 인센티브가 아주 높은 형태이다. 스모 시합에서 가장 중요한 시합은 8승째를 가르는 시합이다. 이 시합을 이기면 순위가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 경제적 가치는 3천 달러에 해당한다. 66위 이내의 선수들 사이의 32,000회 시합 기록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보면, 7승 전적의 선수가 1승을 더하는 승률이 다른 전적의 선수가 1승을 더하는 승률보다 더 높는데, 이것은 7승 전적의 선수가 1승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8승에 가까워질수록 1승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커져서 1승을 얻기 위한 노력은 전보다 더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분석 결과는 경제적 인센티브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그런데, 어떤 통계 분석은 7승을 올린 선수가 1승을 거두기 위해서 심지어 승부 조작을 한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스포츠 세계에서 일부러 지는 부정행위가 가장 비열한 죄악이고, 스모가 위대한 국가의 신성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스모 시합에서 부정행위는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거대한 물질적 이해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

[승리가 모든 것은 아니다: 스모 레슬링의 승부 조작]

[문제 1] <제시문 1>의 인센티브 개념을 참고해서,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나타난 경제적 인센티브 사용의 문제점을 도덕적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단,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계획할 때 주의할 점을 포함하시오.) (800자 내외, 60점)

(뒷면에 계속)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원주) 논술시험 인문계열 문제지

※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제시문 1>

성의 없고 무정한 담임 선생의 위임으로 대개의 경우 그 같은 규칙 위반의 감찰권과 처벌권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석대는 아이들의 고발이 있을 때마다 겉으로 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했다. 예를 들면 입에 혀같이 노는 자기 줄병들도 나하고 같이 걸리면 여럿 앞에서 일단 똑같은 벌을 주었다. 그러나 그와 상대만이 알게 되어 있는 집행에서는 나와 달랐고, 그게 나를 더욱 이 갈리게 했다. 다같이 벌로 변소 청소를 하게 되어도 그쪽은 대강 쓸기만 하면 합격 판정을 내려 집으로 보냈지만 나는 물로 바닥의 때까지 깨끗이 씻어 내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때가 바로 그랬다.

..... <중략>

“너, 아까 뭘 했니?”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나는 박원하에게 가만히 물어 보았다. 원하가 비실비실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 산수가 내 차례였어.” “산수가 네 차례라니? 그럼 다른 과목도 누가 그러는 거야?”

나는 놀라고도 어이없어 다시 그렇게 물었다. 박원하가 잠깐 사방을 둘러보더니 소리를 낮춰 말했다.

“몰랐어? 지난 시간 국어 시험은 아마도 황영수가 했을걸.” “뭐야? 그럼 너희들은.....”

“엄석대의 점수를 받는 거지 뭐. 너는 미술을 대신 그려 주니까 눈치 봐서 두 장을 그려 내면 되지만 시험은 그게 안 되잖아? 석대하고 점수를 바꾸는 수밖에.....”

그제서야 나는 엄석대가 그토록 놀라운 평균 점수를 얻어 내는 비결을 알아차렸다.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려 준 그림도 사실은 석대의 전 과목 수(秀)를 돕고 있었다는 것도.

“전 과목 모두 시험마다 그래?”

나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물었다. 박원하는 공범자끼리의 은근한 말투로 내가 묻는 대로 숨김없이 대답해 주었다.

“전 과목 모두는 아니야. 대개 두 과목쯤은 제 스스로 공부해 오지. 이번에는 자연과 사회만 진짜 엄석대의 실력이야. 그러나 시험마다 그 과목도 바꾸고 대신 이름을 써낼 아이도 바뀌.” “그럼 그 두 과목을 뺀 나머지 시험에서 엄석대가 받은 점수는 어때?”

“한 팔십 점 안팎일 거야.” “그렇다면 이번 산수 시험의 경우 너는 십오 점 이상 손해 보잖아?”

“할 수 없지 뭐. 다른 애들도 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석대는 차례를 공정하게 돌리기 때문에 손해는 모두 비슷해. 따라서, 석대만 빼면 우리끼리의 성적순은 실력대로야. 너같이 재수 좋은 애가 우리 앞에 끼어들지 않는다면 말이야.”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제시문 2>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즉 자율과 호혜에서 도덕적 효력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에는 대개 그 이상이 부족하다. 내가 누군가와 거래할 때 그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내 동의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압력이나 (극단적일 경우) 강요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누군가와 협상할 때 교환 대상에 대해 상대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 그 거래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내가 사기를 당하거나 속을 수도 있다.

실제 삶에서는 사람마다 처한 위치가 다르다. 따라서 협상력과 지식에서 늘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 경우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실제 계약이 도덕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공정한 계약인가, 두 사람이 무엇에 동의했는가?”를 항상 물어야 옳다.

그러나 힘과 지식이 동등하고 처한 위치가 똑같은 사람들 사이의 계약을 상상해보자. 그리고 계약 대상이 일반적인 거래가 아니라,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원칙이라고 상상해보자. 이런 조건에서 맺는 계약엔 강제나 속임수 등의 불공정한 요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계약 조건이 무엇이든, 동의라는 미덕만으로도 그 조건은 공정할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문제 2] <제시문 1>의 밑줄 친 부분에서 ‘공정하다’고 한 판단의 대상과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판단 근거의 타당성을 <제시문 2>의 관점에서 논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2012학년도 연세대학교(원주) 논술시험 인문계열 출제의도 및 제시문 분석

<인문계열 1번 문제>

1. 출제의도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 현상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행동이 빚어낸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이해하고, 현상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해결책을 만들려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 (determinant)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결정인자로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물질적 이해, 사회적 의무, 도덕적 책임이다. <문제2>와 <문제3>은 ‘물질적 이해’를 자극해서 개인의 행동을 목표하는 방향으로 유인하는 해결책 (인센티브)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행동양식에 대한 관찰을 통해 사람의 행동이 물질적 이해라는 단 하나의 자극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했다. 또한, 이런 추론을 바탕으로 어떤 형태의 결론을 유추하는지를 측정하려고 했다.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질적 이해를 자극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인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들 - 경제적(물질적) 인센티브와 도덕적 인센티브 -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2) 인센티브의 역기능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3)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능력을 평가한다.

2. 제시문 설명

<제시문1>과 <제시문2>는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의 「괴짜경제학 (Freakonomics), 2005」의 일부를 발췌해서 변형하고 재구성 한 것이다. <제시문1>은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와 세 종류의 인센티브 개념을 설명한 글로써 <제시문2>와 <제시문3>을 분석할 도구이다. <제시문2>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벌금제도가 잘못 고안되면 그것이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 벌금제도는 사람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자극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의 행동이 물질적 손해나 이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물질적 손해나 이익이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이다. <제시문2>가 보여주는 상황은 지각하는 부모들을 줄이기 위해서 벌금제도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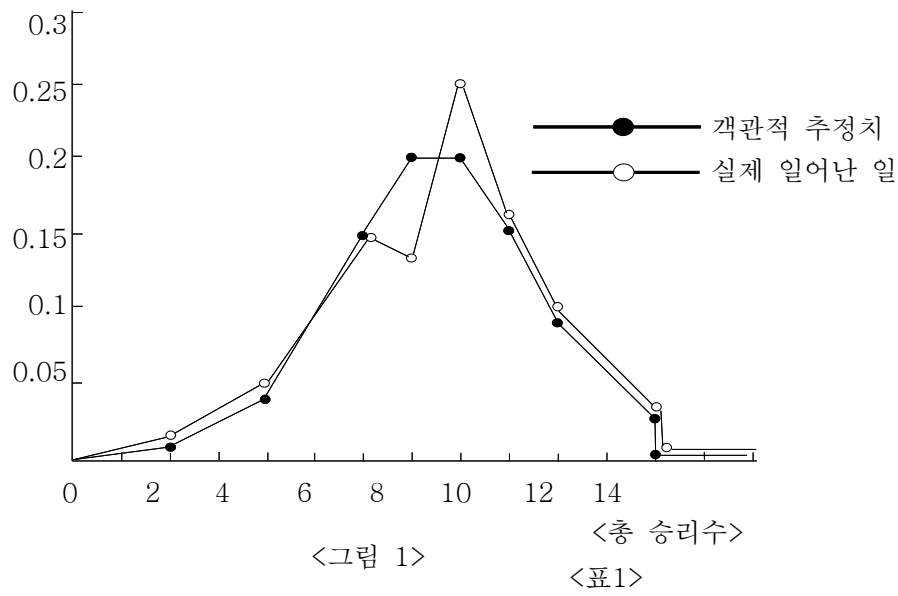
행했는데, 벌금을 2달러로 책정하니까 지각하는 부모의 수가 오히려 늘어난다. 이것은 2달러 (보육비의 180분의 1)의 벌금이 부모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유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부모들은 4시 이후에 싼 가격으로 자녀를 맡길 수 있으므로 아이를 일찍 데려가는 것이 손해라는 계산을 한다. 레빗과 더브너는 2달러의 벌금제도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모들의 죄책감”을 없애 주었다고 해석한다. 즉, 경제적 인센티브가 도덕적 인센티브를 대체했다는 것이다. 2달러만 내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이를 얼마든지 더 늦게 맡겨둘 수 있으므로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센티브는 사람의 행동을 유인하는데 강력하면서도 미묘해서, 인센티브는 조심스럽게 고안되어야 한다.

<제시문3>은 마크 더간과 스티븐 레빗의 논문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은 아니다: 스모 레슬링의 승부조작 ("winning isn't everything: corruption in Sumo wrestling", American Economic Review, 2002)”에서 발췌해 가공한 것이다. 스모 레슬링 선수의 순위에 대한 보상구조는 하위권에 비해 상위권에 주는 물질적, 비물질적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높다 (5-10위와 70위 사이의 연봉차이는 16배 이상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가 7승을 이미 달성한 선수가 1승을 더 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한다. 논문에 있는 <그림>을 통해 설명해보자. 아래 <그림1>에서 통계적 모형에 의한 추정치는 66위 안에 든 선수들 중 7승과 8승을 한 선수의 비율이 같게 나오지만, 스모 시합을 통해 실제로 일어난 것은 8승을 한 선수의 비율이 7승을 한 선수의 비율보다 12%가 높다. 이것은 6승을 한 선수보다 7승을 한 선수가 1승을 올리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7승 선수의 승률이 다른 전적을 가진 선수의 승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물질적 인센티브가 노력을 유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으로, <표2>도 8승에 근접하는 선수들의 수가 많을수록 승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는 데, 이것은 실력이 좋은 선수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도 할 수 있지만, 8승에 가까워질수록 이기기 위한 인센티브가 커져서 그 만큼 노력도 커졌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표3>은 8승을 하면 얻게 되는 물질적 보상이 너무 커서 7승을 올린 선수가 1승을 거두기 위해서 심지어 승부조작을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다음과 같은 통계조사로 작성되었다. 7승 전적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승부조작에 대한 언론의 조사가 있을 때와 승부조작의 가능성이 적은 우승가능성이 높은 선수 (우승하면 100,000달러를 상금으로 받는다)와 시합을 했을 때의 승률을 조사한다. 그리고 15일간의 시합 중 무작위로 선정한 날의 평균승률을 계산한다. 두 경우의 승률을 비교하면 무작위 시합의 평균승률이 승부조작이 가능하지 않은 시합의 승률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승부조작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질적 인센티브가 노력에 비례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클 때에는 심지어 승부조작과 같은 범죄행위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나치게 강한 물질적 인센티브가 도덕적 인센티브를 무력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제시문>은 인센티브를 계획할 때, “(1) 사람의 행동을 목표한 대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적정수준을 찾는 것이 인센티브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2)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보상 제도, 즉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상을 해주는 물질적 보상 제도는 오히려 부패를 유인할 수 있다. (3) 경제적 인센티브가 도덕적 인센티브를 약화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다.”라

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66위
안에 든
선수들의
비율



참가선수	승률
15일 : 7승 선수	0.24
14일 : 7승 선수 + 6승선수	0.15
13일 : 7승 선수 + 6승선수 + 5승선수	0.09
12일 : 7승 선수 + 6승 선수 + 5승선수 + 4승 선수	0.03

<표1>

7승 선수의 시합	평균 승(+) · 패(-)율
평균	0.15
승부조작에 대한 언론의 조사가 있던 날의 시합	-0.14
우승가능성이 높은 선수와의 시합*	-0.15
※ 우승자에게는 100,000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표2>

<인문계열 2번 문제>

1. 출제의도

[문제 2]는 <제시문 1>의 소설에 그려진 것과 같이 초등학생의 삶에서부터 일반인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현실 세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형태의 계약(혹은 합의)이 공정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제시문 2>에 제시된 “자율과 호혜”가 계약의 공정성(도덕적 효력)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문 1>에 제시된 사건에 적용해서, 판단의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판단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사태를 명확히 조망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내는 독해력과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력, 추상적 명제를 구체적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비판적 및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려고 했다.

2. 제시문 설명

<제시문 1>은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의 일부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 국어(상)에 실려 있어 수험생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문이다. <제시문 1>의 밑줄친 부분 “석대는 차례를 공정하게 돌리기 때문에 손해는 모두 비슷해.”에서 계약의 주체는 ‘엄석대’와 ‘(박원하로 대표되는) 아이들’이고, 계약의 내용은 ‘차례대로 답안지의 이름을 바꿔쓰기’이며, ‘엄석대와 아이들이 답안지의 이름을 바꿔쓰기’로 한 계약이 공정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계약의 주체(아이들)가 입는 손해가 비슷하다’는 결과임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엄석대와 아이들이 평등한 관계가 아님을 제시문의 첫 문단에서 알 수 있고, “손해”라는 표현에서 그 계약이 호혜적이지 않은 계약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지문의 화자(박원하)는 아이들이 비슷하게 손해를 보는 것이 엄석대가 공정하게 차례를 돌리기 때문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제시문 2>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의 일부이다. <제시문 2>에서는 ‘힘과 지식, 처한 위치가 똑같은 사람들에 의한 자율(적 계약)’과 ‘계약 당사자들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호혜(적 계약)’가 계약의 도덕적 효력(공정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계약의 두 주체가 평등한 위치에 존재하기 어려우며 계약의 이행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어려우므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계약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주장한다.